

양과합격기
[제53회 사시 / 제29회 법원행시 합격]

멸종의 위기를 넘기위해



임 윤 석

- 1976년 생
- 전남 해룡고등학교 졸업
-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합격
- 제29회(2011년)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I. 서 론

1. 감사의 말

2011년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양자를 일곱 분이 합격했습니다. 저보다 다른 분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난데도 저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시계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2. 나의 소개

굴비와 원자력발전소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에서 7녀 1남 중에 일곱째로 출생했고, 그곳에서 월송초등학교, 해룡중학교, 해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 나의 성격

이를 밝히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다르고 공부방법도 천차만별이어서 읽으시는 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좀 차분한 성격이지만 일을 할 때는 활동적입니다. 에니어그램 6번입니다. 저와 같은 번호에 있는 사람은 축구선수 박지성, 그리고 공무원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MBTI 검사에서는 ISTJ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4. 공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과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학회와 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윤철홍 교수님의 채권법 총론을 두 번 F맞은 적도 있습니다. 법학공부를 했던 기억은 1학년 때 곽윤직 교수님 민법총칙을 12페이지 읽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

던 경험뿐이었습니다. 고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대학 시절에 학과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게 될 무기가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합격하겠다는 약속과 친구 고상현에게 너는 교수가 되라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5. 이하 본론은 존칭을 생략하고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세한 것은 고시반 후배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II. 본론

1. 고시공부의 특징

㉠ 외롭다 : 자신과의 싸움이다. 혼한 예로 드는 마라톤의 경우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뿐이다. 42.195km 거의 전부를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입에서 뱉어져 나오는 호흡소리와 함께 달려야 한다. 가족이 의지는 되지만 마라톤 코스의 경우 물 마시는 장소에서만 만나게 된다.

㉡ 궁지에 몰린다. 어려서 시작한 사람과는 달리 30대에 들어서 또는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 시험공부와 연구를 구별해라. 시험공부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기 위

해 노력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 이해의 깊이는 높아질지 몰라도 자신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심각히 고려할 부분이다.

㉣ 수험생은 약자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쓸데없이 남 걱정하다가 자기 손가락 뺏기는 상황을 맞이한다. 타인을 걱정하는 분들의 심성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심성과 시험은 별개다.

㉤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고시를 시작하면서 이제 막 외시 합격을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청운의 꿈을 안고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더 열심히 하라”는 답을 들었다. 그 당시에 나는 이분이 농담을 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난 지금에서는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수험은 일정기간의 꾸준한 공부와 시험 직전의 소나기와 같은 몰아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공부준비과정

본격적인 시험공부에 앞서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주변상황을 정리하고,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부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 자금해결. 돈 벌면서 공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여건상 돈 벌면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공부 시작할 때와 짝수시(2시, 4시, 6시)가 끝나면서 급전적 문제에 부

뒀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하는 나의 경험이다.

재시 때까지는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 재시 끝나고서는 경제적 문제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취직을 했었는데, 취직생활 1년 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당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다가 당시 이사 분들의 모습이 내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과연 그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긍정적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때 나를 받아준 회사에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어서 양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취직을 하면서 공부과정에 결과적으로 3년여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4시때 준비해 둔 돈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넷째 매형이 전화해서서 지원할 테니 합격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5시때 다시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 이규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 후로 6시까지 학교 고시반의 지원으로 공부를 했다. 간간이 독서실 총무나 채점 등의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대부분 지원금으로 생활을 했다.

㉠ 공부장소. 숙소와 공부장소는 10분 이내의 거리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퇴근을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 자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할 것. 수다가 많은지, 인내심이 약한지, 술을

좋아하는지, 게임에 빠져있는지, 시간관리를 못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험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과정이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별도로 장점도 분석하고 공부계획에 반영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3. 시험공부 일반론

시험공부를 해라. 앞서 얘기했지만 시험공부가 아닌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다. 공부수준은 되는데 성적이 낮다면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 법학공부의 어려움. 판택턴 체계로 법학 교재가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일정수준이 되기까지 교재의 총론과 각론은 머릿속에서 따로 놓고 있다.

㉣ 회독수를 올려라. 한부분만 열심히 읽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장님이 만져본 코끼리의 비유”를 예로 들면 장님 여섯 명이어서 각각 코, 앞다리, 꼬리, 뒷다리, 배를 만지고서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모두의 설명이 달랐다. 코끼리를 전부 만져본 장님이 없어서 코끼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장님은 없었다. 법학은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를 많이 풀어라. 교과서상 표현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면 의미가 없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풀어내야 한다. 수험생이기 때문이다.

㊸ 입체화해라. 가능한 한 교과서의 내용이 입체화된 그림으로 보여야 한다.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구대가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교과서상 법률관계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한다. 평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해도가 낮고 연결된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고, 교과서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판례 공부시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해둔다면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후에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㊹ 잔머리 굴리지 마라. 공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 조문을 읽고, 교과서를 읽고, 판례를 보고 문제를 풀어라. 너무 많다고 얇은 책 한권이나 모의고사로만 배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방법이다.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㊺ 결과물을 남겨라(정리의 중요성). 한 순환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의 절반 또는 1/3시간 이내에 같은 양, 또는 더 많은 양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 정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경우는 책에 밑줄을 긋고, 꼭 암기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암기장을 만들었다.

㊻ 조문의 중요성.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는 조문을 보고 별도로 법전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방법이다. 공부의 시작은 조문이고 끝도 조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은 조문을 정확히 아느냐 여부에 따라서 합격여부가 갈린다는 간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나의 경우 5시 준비 중에 정주형 선생님과 형사소송법 조문 스터디를 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4. 생활관리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다. 험한 표현이지만 수험생 시절에 공부하던 사람들과 했던 말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적절한 말이라는 생각을 한다.

㊼ 전자기기를 없애야 한다. 내생각에 핸드폰도 불필요하다.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시대의 공중전화는 고시생을 위한 KT의 배려라고 넓게 이해하면 된다.

㊽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수험생활은 단조로워야 한다. 그래야 재미없는 법학이 재미있어지기 때문이다.

㊾ 사람만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험생활은 무미건조해서 조그마한 일들도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각종의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을 만나고 책상에 앉으면 대화내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공부 시간은 줄어들고, 자칫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되어 있다.

5. 운동, 기분관리, 휴식

㊿ 운동. 하루 30분에서 1시간정도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는, 수영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었고(아침 6시에 관악청소년회관에 나갔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나갔다. 매일반이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다녔다.), 등산은 2011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공부시간 조절의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했다. 신림동 관악산의 일부를 올랐고, 2차 시험 보기 2주전까지는 고려대 개운산을 점심때 30분 정도 다녔다.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수험기간의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㉞ 기분관리. 즐겁게 살아야 한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웃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좀 우울한 사람이다. 스스로 웃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같이 공부할 때는 가급적 웃긴 사람과 같이했다.

힘들 때는 내가 왜 공부하려 했는지 다시 생각했다. 4시때 5월경 고시24시 앞에 서있는데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느낌을 받을 때, 6시 시험 기간 중 새벽녘에 다음날 공부하다가 쉬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충동을 이겨냈던 적이 있다.

우울할 때 기분관리도 중요한데 씩 잘하는 편은 아니다. 나는 그럴 때 전남 영광에 있는 불갑사에서 보았던 달력이 생각났다. 대학 초년 시절에 불갑사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전날 스님들과 맥주 한잔 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방안을 굴러다니고 있는데, 문득 벽에 걸

려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그림과 글귀가 적혀있었는데 그 내용은, 스님 둘이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인지, 바람이 흔드는 것인지 논쟁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대스님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피로울 때는 어찌해야 할지 내공이 약해서 잘 모르겠다. 나의 경우 4시 보던 해 2월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는데 암으로 긴 투병생활을 보내고 난 후였다. 투병 기간 중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나는 2차 학원을 다니던 중이었다. 그 당시 학원 건물 앞에서 쭈그러 앉아서 눈물을 흘리던 일,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눈시울 붉어져서 걸었던 일이 기억난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좌표를 상실하게 되어 수험생이면서도 긴 방향을 했었다. 시간이 지나고 삼삼산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마음의 안정과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가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지켜봐준 친구 고상현, 이근상, 김은주와 하창진 그리고 후배 김동석, 김은숙, 김민영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피로위하던 나에게 따뜻한 밥을 선물해 주시던 김선채 형님과 신림 9동의 장독대 사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㉞ 휴식의 중요성. 주말 휴식은 다음 주 공부를 위한 초석이다. 잘 쉬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나의 경우 현명하지 못했는데 주말에는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

셨다. 주말에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영화보기, 뒷산 가기, 혼자 삼겹살 먹기 등을 여러 번 시도했었다. 그리고 주말은 온전히 쉬면 안 되고 3~4시간정도 공부해야 다음 주 공부가 잘되는 거 같았다.

6. 사법시험

1차 시험 공부 방법과 2차시험 과목별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수기들에서 너무나 훌륭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나의 경우 1차에서 2차로 공부 방법을 전환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쓴다.

(1) 2차 시험

㉠ 초시와 재시를 보던 당시에는 학원을 다니다가 8월 이후로는 혼자 공부를 했었다. 그러면서 답안지쓰기를 게을리했고 그러다보니 암기는 생각지도 않았다. 교과서 보기가 벽차서 사례집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이 당시의 나는 2차 시험을 몰랐었다.

㉡ 3시와 4시 때는 2차 시험 공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교과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는 것, 사례집을 볼 때는 내용을 읽지 말고 초안을 잡고 문제제기와 사안포섭 위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답안지를 열심히 써야 한다는 것 등을 실천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이해 위주의 책임기를 해서 내가 읽은 것을 답안지에 어떻게 써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암기 량이 부족했

었다. 그리고 시험을 빨리 끝내겠다는 욕심에 법원행정고시 1차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었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말이다. 4시 2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수험생으로서의 특유한 감각이 생겨났으나 아버지가 별세하시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되었다.

㉢ 6시 때는 공부 방향을 사례풀이와 암기로 바꾸었다. 내가 보던 교재에 나오는 판례는 전부 암기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과도하기는 했지만 암기 량을 대폭 늘렸다. (i) 이때부터 쟁점노트를 만들었다.(여기에는 쟁점 목차만 적혀있고, 이것을 보면서 암기할 내용을 계속 떠올려 보는 것이다.) (ii) 사례집의 경우 초안을 잡고서 초안목차와 사례집목차를 대비해보고 문제제기와 사안해결 부분만 읽었다. 사례집에서 사례문제 위에 목차가 나오는 경우 화이트로 지웠다. 초안 잡을 때 선입관을 주어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빠져 있는 쟁점은 사례집에 별도로 표시를 해서 보았다. iii. 답안지쓰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테디를 구성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답안지를 채점해 주는 방식으로 했다. 덕분에 세밀한 채점이 가능했고, 매일 두 시간 시험을 볼 수도 있었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한 순환을 더 돌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iv) 암기는 답안지 스테디 원들과 함께 했는데 전날 범위의 판례를 암기해서, 매일 점심때 밥을 먹으면서 말해보는 방식이었다. (v) 시험 장소는 고려대로 신청을 해서 시험보기 한 달 전에 근처로 숙소를 옮겼다. 스테

디원 모두 그곳에서 답안지쓰기, 암기스터디를 계속 했었다. 스터디를 함께 했던 이현준, 이재원 두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시험 볼 때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재원의 부모님과 이현준의 여자 친구 이민정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공부 방향 설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이은경씨, 황의수씨께 감사드린다.

(2) 3차 시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했었다. 답변은 그냥 편하게 쉬다가 가라는 것과 7법을 가볍게 한번 보고 가라는 두 가지 이었다. 개인적으로 법원행정고시 시험이 있어서 법학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됐지만 시사 문제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신문을 읽고 격주로 발행하는 잡지를 읽었었다. 면접 당일날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집단토론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개별면접을 쉽게 넘어가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별 면접 때 “워렌 버피”를 아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지만 다른 답변은 잘해서 무리 없이 넘어갔던 거 같다.

7.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 3시 때 사시공부를 중단하고 법원행정고시 1차를 준비했었으나 불합격했던 일이 있었고, 사법시험 6시가 끝나고 나서 학교 고시반 후배들과 함께 법원행정고시 1차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다. 사시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법원행정고시 1차를 같이 준비한 후배 김은숙, 지행

정, 최보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1) 1차 시험

처음에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 보았던 1차 교재를 한번이라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8월 초가 시험이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몸과 마음상태가 받쳐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법원시험 기출문제(심우출판사)를 사서 3번 보고 최신판례와 바뀐 법령 체크만을 하고 시험을 보았다. 다행히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와 합격의 하게 되었다. 법원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2) 2차 시험

시험날짜가 사법시험 발표와 겹쳐지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었던 기억이 있다. 처음 준비할 때는 답안작성 스터디를 했었는데 형사소송법만 하고서 중단이 되었다. 그 후로 혼자서 책 읽고 사례풀이만을 했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이후로는 법원직 2차 기출문제(심우출판사)를 중점적으로 보았었다. 실제로 민법과 형법의 경우 기출문제가 절반정도 나와서 두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왔다. 시험장 출퇴근은 모범택시를 예약해서 했다. 식사는 법원 공무원교육원에 식당이 있어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틀 동안 같이 고생한 정현철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3) 3차 시험

사법시험 면접 준비 경험이 있어서 크

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준비할 때는 신문을 읽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았었다. 면접 당일에 집단토론은 30분정도 개인별로 한 번씩 발언하고 끝났다. 이때 분위기가 좋아서 개별면접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대상에 판결이 포함되는지?” 라는 질문에, 포함은 되는데 상소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해서 보충성원칙에 의해 각하된다고 틀리게 답변을 했다. 면접관께서 법원도서관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다른 수험생들은 면접을 한번 했는데 혼자서만 두 번 했었다.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와이셔츠 목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다행히 같은 날 두 번째의 면접에서 답변은 틀리지 않게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III. 나가며

1. 감사의 말

제가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고추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를 걱정하며 소리죽여 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를 끝까지 지켜봐주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삼성산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당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 너무도 빨리 하늘나라로 가신 임은주 작은아버지, 임성주 작은아버지, 사촌 임여빈, 첫째 매형께도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과 싸우고 계시는 여섯째 매형 파이팅입니다.

숭실대학교 윤철홍 교수님, 최정식 교수님, 고문현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교 고시반(송현관) 후배들에게도 힘내라는 말을 전합니다.

2. 다시 갈림길에 서서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여러 고민과 준비로 바쁜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시로 앞으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대신합니다.

踏雪野中去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不須胡亂行 (함부로 어지러운 걸음을 하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 (후대의 길잡이가 되리니)